

신문 기사의 언어 사용 양상: 코퍼스언어학적 접근

Aspects of Language Use in Newspaper Articles: A Corpus Linguistic Perspective

송 경 화*

(Kyung-hwa Song)

강 범 모**

(Beom-mo Kang)

요 약 본 연구는 신문 기사에 대한 실증적 언어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21세기 세종계획>에 의해 구축된 대용량의 신문 기사 말뭉치를 형태, 어절, 절, 문장 등의 단위로 계량화하여 분석하였다. 신문 기사를 표제, 전문, 본문의 세 구성 성분으로 나누고 표제의 표시성과 압축성의 실현 양상, 전문과 표제의 연관성, 본문의 문장 구조와 일반명사 구성 비율 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비계량적 연구 방법들과 차별화된 실증적 연구로서 신문 이론을 검증하고, 신문 기사의 새로운 언어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신문 기사와 같은 텍스트는 인간의 인지적 언어 처리의 결과이며 동시에 인지적 언어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제어 신문 기사, 말뭉치, 계량화, 표제, 전문, 본문, 형태분석, 형태의미분석, 구문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newspaper articles from corpus linguistic point of view. We used a large corpus of newspaper articles built from <21st century Sejong Project> and counted occurrences of certain expressions. A newspaper article is divided into the headline, the lead and the body. We tried to figure out how to measure the characteristics of indication and compression which are typical to headlines. Then, we focused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headline and the lead. Finally, we analyzed the sentence structure and measured the ratio of the frequency of common nouns in the body. This study verifies the existing stylistic theories of newspapers and shows new aspects of language use in newspaper articles. Texts like newspaper articles are the results of human language processing and they in turn affect the development of cognitive ability of language.

Keywords newspaper articles, corpus, quantification, headline, lead, body, morph-tagged corpus, sense tagged corpus, parsed corpus

* 교신저자: 송경화,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연구세부분야: 언어 논리 및 인지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E-mail: orange1023@korea.ac.kr

**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E-mail: bmkang@korea.ac.kr

*** 편집자 주: 이 논문은 제 18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어 초청 논문으로 실립니다.

1. 서 론

츨스키(N. Chomsky) 이후의 언어 연구는 직관을 이용한 이성주의적 연구 방법을 수용한다. 이것은 만들어진 데이터와 직관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로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언어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경험주의적 방법과 대립되는데, 이러한 직관을 이용한 연구 방법은 나름대로의 학문적 기여가 있지만 자료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언어 사용에 대한 만들어진 데이터는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 판단될 소지가 있으며, 일반적인 언어 현상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성주의적 연구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경험주의적 방법으로서의 코퍼스 언어학이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 대량의 언어 자료를 구축하고 가공하는 일이 용이해졌고, 실제로도 다양한 종류의 말뭉치들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도 이러한 경향에 발맞추어 <21세기 세종계획>에 의해 구축된 여러 형태의 말뭉치들을 이용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할 것이다.

직관을 이용한 이성주의적 언어 연구와 언어 사용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경험주의적 연구는 완전히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언어 자료는 두 가지 면에서 인간의 인지적 지식 및 언어 처리와 관련된다. 첫째, 언어 자료는 언어 지식을 바탕으로 언어 처리의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이다. 따라서 그 결과가 인지적 관점의 언어와 완전히 이질적인 것이 아니다. 언어 자료를 통하여 인지 체계로서의 언어 지식과 언어 처리를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둘째, 인간의 언어 습득 과정과 언어 및 인지 변화의 과정에서 언어 자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접하는 과정에서 언어 사용자는 언어 및 기타 언어 사용에 관한 지식과 인지 체계를 형성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문 기사의 언어는 중요하다. 보통의 사람들이 거의 매일, 가장 많이 접하는 형식의 언어는, 구어를 제외한다면, 신문 기사의 언어이다. 따라서 언어 자료가 언어 지식에 영향을 미친다면 신문 기사의 언어가 그러한 역할을 가장 많이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언어 자료가 언어 지식과 인지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중심을 둔 연구는 아니다. 그러한 연구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언어 자료에 관한 수많은 실증적 연구의 기반 위에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신문 기사의 표제에서 느끼는 '간결성'과 '복잡성'과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언어의 어떤 면들과 관련되는지와 같은 초보적인 단계의 자료와 인지 관계가 언급될 뿐이다.

기존의 신문 기사에 대한 연구들은 경험적인 언어 분석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신문학 분야의 연구는 기사 스타일 및 작성법에 관한 연구들[6]이 대부분이며, 실증적인 연구로는 특정 기사의 내용에 대한 비교분석[5]이 주를 이룬다.

신문 작성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박종화(2003)[6]에서는 신문 기사 장르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저널리즘의 이론과 언론 현장을 연계시켜 미디어

1) <21세기 세종계획>은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한 국어정보화 프로젝트로 10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다. <21세기 세종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홍규 외(1998-2004), 21세기 세종계획 국어기초자료 구축분과 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 [3] 참조.

문장을 연습하고 학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실증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여기에서 다룬 저널리즘 이론은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려는 본 연구와 어느 정도 관계되는 면이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신문 기사의 특성들을 본 연구에서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언어학 분야의 신문 기사 연구로는 강범모(1999)[1]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어 텍스트에 나타나는 각종 언어 특성들의 담화적 기능을 탐구하였으며, 다양한 한국어 텍스트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 특성들의 빈도를 조사하여 한국어 텍스트의 장르와 언어 특성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한국어 말모듬’을 기본 말뭉치로 사용하여 텍스트의 여러 장르를 다루었고, 그 중의 하나로 신문 기사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신문 기사를 종합/사회/경제/외신, 문화/생활/과학, 그리고 논설/칼럼의 세부류로 나누어 각각의 언어 특성들을 규명하였다.

강범모·김홍규·허명희(2000)[2]에서는 강범모(1999)[1]의 연구를 확장하여 좀 더 언어학적인 이론 및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인자분석, 군집분석, 정준판별분석 등 고급 다변량 통계 분석을 이용하여 더욱 전문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신문 기사의 코퍼스 언어학적인 연구는 위에서 설명한 두 연구가 있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것들은 텍스트의 언어 특성을 연구하면서 신문 기사를 그 중 일부 장르로서만 다루었기 때문에 신문 기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국어학 분야에서의 신문 기사 연구는 주로 담화 형식에 의한 문체론의 한 분야로 다루어

지고 있다. 박갑수(1998)[4]에서는 신문의 문체와 표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신문·방송·광고와 같은 매스컴이 이들의 이론에 관한 연구만 있고, 표현 형식인 언어에 관한 연구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루어졌다. 신문 기사 작법과 함께 한국 기사의 현실을 고찰한 이 연구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신문 기사의 언어학적 분석과 많은 연관성이 있다. 기사문의 구조 및 문체에 대한 이론 제시와 함께 실제적인 신문 기사의 쓰임을 예시하였고, 때때로 특정 현상에 대한 빈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실증적인 연구는 이전까지 이론적인 연구가 대부분이었던 것을 감안하였을 때 새로운 시도로서 큰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분석 자료가 특정 기간에 몰려있고, 적은 분량의 텍스트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다. 또한, 자료에 대한 정확한 분량의 제시와 분석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차별된 방식으로, 제시된 이론들의 검증과 함께 신문 기사의 새로운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1세기 세종계획>에 의해 구축된 대용량의 신문 기사 말뭉치를 다양한 각도로 제량화하여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신문 이론을 검증하거나, 새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2.1 연구 대상

신문 기사는 그 서술 형태에 따라 역피라미

드형, 피라미드형, 혼합형의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역피라미드형은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부터 전달하는 서술 형태이며, 바쁜 독자를 위한 빠른 전달을 위해 개발된 방식이다. 이것은 기사의 중요한 사실을 첫 문단에 두고, 나머지를 다음에 쓰는 방식으로 첫 문단의 글만 읽어도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기사 앞부분에서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기사를 읽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제작하기 쉽고, 표제 작성에 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문 기사의 90% 이상이 역피라미드형으로 쓰이고 있다. 피라미드형은 역피라미드형과 반대되는 것으로 사실의 경우에 많이 쓰인다. 사실은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논법에 따라 문장을 전개한다. 주제로 다루는 사안을 서론에 도입하고 본론에 구체적 사례로 주제를 보강하며, 주장으로 결론을 맺는다. 이밖에 시공간적 순서대로 서술하거나, 상황을 현실감 있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라미드형을 이용한다. 혼합형은 역피라미드와 피라미드의 형식을 함께 활용하는 형식이다. 이것은 핵심부분을 먼저 요약하고 그 다음을 피라미드형으로 쓰는 방식이다.

신문 기사는 보통 표제(제목: headline), 전문(서두: lead), 본문(body)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표제는 신문 기사의 머리에 있는 것으로, 독자들에게 이어지는 기사의 주요한 정보를 주려고 요약 표현한 것이다. 전문은 전달하려는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역피라미드형과 혼합형의 신문 기사에서 첫 번째 문단으로 쓰인다. 신문 기사의 대부분이 역피라미드형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해설 기사나 사설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기사에 전문이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본문은 전문을 부연하고 고증하는 부분이다. 즉, 표제와 전문에서 드러난

기사의 요지 또는 기사 주제에 대한 주요한 사실들을 보충하며, 사건과 관련한 흥미로운 사실을 기술한다.

신문 기사는 그 내용과 목적에 따라 크게 보도-해설 기사와 사설-칼럼 기사로 나눌 수 있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보도-해설 기사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사설-칼럼 기사는 그 내용과 형식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신문 기사를 표제·전문·본문의 구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필요에 따라 보도-해설 기사와 사설-칼럼 기사의 구분을 두고 각각의 구성에 대한 적절한 방법의 계량적 연구를 이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한 국어 기초자료 말뭉치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7년에 걸쳐 구축된 말뭉치는 원시 말뭉치, 형태분석 말뭉치, 형태 의미분석 말뭉치, 구문분석 말뭉치로 나뉜다. 본 연구의 표제와 전문 분석에서는 형태분석 말뭉치를, 본문 분석에서는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와 구문분석 말뭉치를 이용할 것이며, 각 말뭉치의 신문 기사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할 것이다. 각각의 말뭉치 규모와 신문 기사 비율을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신문 기사의 구성별 특성 혹은 장르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비교 말뭉치가 필요하다. 비교 말뭉치는 <21세기 세종계획> 국어 기초자료 말뭉치에서 신문을 제외한 일반 말뭉치들 중 적절한 장르 비율²⁾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비교 말뭉치는 비교 대상의 어절 수에 맞추어 만들어졌으며 각각의 규모에 대

2) 비교 말뭉치의 장르 구성은 교육, 상상, 체험, 인문, 사회, 자연, 예술, 생활 분야에 대하여 같은 비율로 구성하였다.

<표 1> <21세기 세종계획> 국어 기초자료 말뭉치

구분	구축 어절 수	신문 기사 어절 수	신문 기사 비율
원시 말뭉치	62,429,781	17,884,995	28.6%
형태분석 말뭉치	12,131,018	2,676,699	22.0%
형태의미분석 말뭉치	8,109,436	1,713,995	21.1%
구문분석 말뭉치	363,226	93,798	25.8%

해서는 추후에 제시한다.

2.2 연구 방법

먼저 신문 기사의 표제를 추출하기 위해 형태분석 신문 기사 말뭉치의 대상 원시 말뭉치를 이용하였다. 원시 말뭉치에 마크업된 표제 표지(<head>)가 형태분석 말뭉치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태분석 말뭉치만으로는 자동으로 표제를 추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시 말뭉치의 <head>를 추출하고, 추출된 표제의 앞뒤 두 어절을 형태분석 말뭉치의 원어절과 비교하는 방식의 자동화 도구를 개발하여 형태분석 말뭉치에서 표제를 추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시 말뭉치와 형태분석 말뭉치의 어절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하여 일부 수작업이 병행될 수밖에 없었다. 두 말뭉치의 어절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까닭은 원시 말뭉치의 오류가 형태분석 말뭉치에서는 수정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다. 원시 말뭉치의 오류로는 주로 띄어쓰기 오류, 단순 오타, 특수 문자 깨짐 등이 있었다.

전문 추출도 표제 추출과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원시 말뭉치에서 표제 표지 바로 뒤의 문단 표지(<p>)를 추출하고, 앞뒤 두 어절을 형태 분석 말뭉치의 원어절과 비교할 때 표제와 전문의 어절이 같을 경우 전문 대신 표제가 추출되는 문제에 대비하여 형태분석

말뭉치에서 미리 추출한 표제를 삭제한 후 전문을 추출하였다.

본문은 이미 추출된 표제와 전문을 삭제하여 추출할 수 있었다.

표제와 전문 분석에서는 형태분석 말뭉치를 이용하여 각각의 비교 말뭉치와 형태별 빈도를 비교하였다. 본문 분석의 문장 구조 분석에서는 구문분석 말뭉치를 이용하였다. 구문분석 말뭉치의 (S)표지로 단문과 복문을 분리하고, 복문의 경우 (CNJ)표지를 이용하여 접속 구성을 추출하였다. 나머지 내포 구성은 명사절 (S_SBJ, S_OBJ)표지, 관형절 (S_MOD)표지, 부사절 (S_AJT)표지, 인용절 (Q)표지를 이용하여 각각 분류하였다. 본문의 어휘 분석은 형태의미분석 말뭉치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본문의 일반 명사를 사전과 비교하여 명사별 빈도를 추출하였다. 형태별 토큰 개수 비교를 위한 도구는 21세기 세종계획 국어 기초자료 구축 분과에서 말뭉치 가공을 위해 사용하는 형태별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문장 구조 분석은 같은 분과에서 2003년에 개발한 구문분석 말뭉치 종합관리도구를 이용하였다.

3. 표제 분석

신문 기사 말뭉치 2,506,665어절에서 추출한 표제의 총 어절 수는 115,492어절이다. 일반

말뭉치와의 비교를 위해 같은 어절 수의 비교 말뭉치를 선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3.1 표제의 특성

신문의 표제는 1) 표시성, 2) 압축성, 3) 감동성, 4) 품위, 5) 심미성의 기능을 지닌다. ([8] p.226-234) 본고에서는 표제의 ‘표시성’과 ‘압축성’이라는 특성에 주목하여, 이러한 특성들이 실제 말뭉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를 분석한다.

표시성

신문의 표제는 내용을 드러낸다. 문학 장르의 경우 그 제목이 상징적인 경우가 많지만, 신문 표제의 경우는 표제만 보고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 표제에 있어서 표시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 표시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명사와 동사, 형용사 등 내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표제의 경우 불완전 종결의 특성으로 인해 용언의 쓰임이 거의 없고, 서술성 명사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명

사의 비율에 주목하였다. 표제의 불완전 종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압축성 부분에서 다루도록 한다. <표 2>는 신문 기사 표제와 비교 말뭉치의 형태별 토큰 개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신문 기사 표제의 경우, 일반 말뭉치보다 명사의 쓰임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표제가 수식언 등의 군더더기 없이, 명사를 사용하여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최소한의 표현으로 많은 정보의 정확한 전달을 목적으로 함을 보여준다. 또한, 명사와는 반대로 대명사의 경우 표제에서의 쓰임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시 대상의 모호성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기호의 경우, 종결 부호를 제외한 나머지의 기호들이 표제에 더 많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어 대신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이해 속도를 높이고, 특히, 인용부호를 많이 사용하여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압축성

신문의 표제는 그 자체가 하나의 기사로서 사건 자체의 압축된 기술이어야 한다. 바쁜 독자와 한정된 지면을 고려한 압축이 기사의 주요한 특징이 되는 것이다. 압축의 대표적인 방법은 생략이다. 형태별로 비교해본 결과 일반 말뭉치에 비해 적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표 3>에 제시된 조사, 수식언이었다.

신문 표제 말뭉치는 일반 말뭉치와 비교해 조사의 쓰임이 훨씬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조사를 생략함으로써 빠르고 간결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수식언(관형사, 부사) 또한 표제에서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표시성의 분석에서, 표제의 명사 출현빈도가 높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

<표 2> 표제/일반 말뭉치 비교 1

	표제		일반	
	형태 수	비율	형태 수	비율
일반-고유명사	107,220	52%	59,67	23%
대명사	441	0.2%	4,002	1.5%
종결부호	596	0.29%	8,761	3.39%
, · : ; /	4,947	2.40%	4,478	1.73%
인용부호	18,145	8.82%	5,060	1.96%
~	286	0.14%	79	0.03%
기타기호	2,563	1.25%	144	0.06%

<표 3> 표제/일반 말뭉치 비교 2

	표제		일반	
	형태 수	비율	형태 수	비율
조사	13,160	6%	45,127	17%
수식언	3,867	2%	12,551	5%
말줄임표	1,674	0.81%	174	0.07%

수식언의 출현빈도가 낮아짐으로써 명사의 출현빈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최소한의 표현으로 최대한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부가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표시성 분석에서 살펴본 기호의 높은 출현빈도와 관계하여 신문 기사 표제에 말줄임표가 매우 높은 빈도로 출현함을 알 수 있다. 말줄임표를 이용해 필요 없는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5장에서 살펴보게 될 문장 구조 분석에서도 표제의 압축성과 관련된 결과가 나타난다. 일반 말뭉치의 복문 비율이 33%인 것에 비하여 신문 기사 표제의 복문 비율은 3%에 불과했다. 문장 구조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5장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표 4>는 표제의 종결형을 분석한 것이다.

박갑수(1998: p.14)에서 표제는 기사의 요약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낱말을 써 이해하기 쉽게 쓴 완전한 진술 문장이라고 하였다. 이론적으로 표제는 주술어를 갖춘 완전한 문장으로서 진술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

<표 4> 표제 종결형

	어절 수	비율
완전 종결	1,504	6%
불완전 종결	24,861	94%
총	26,365	100%

<표 5> 표제 불완전 종결 구성

	어절 수	비율
체언	19,990	80.4%
연결어미	2,453	9.9%
조사	1,315	5.3%
어근	627	2.5%
부사	371	1.5%
전성어미	105	0.4%
총	24,861	100%

라 신문 기사의 표제는 완전한 진술 문장보다는 불완전한 진술 문장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특성은 표제와 일반 말뭉치의 용언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에도 나타나 있다. 표제의 경우 용언이 10,555 형태로 5%인 것에 비해 일반 말뭉치는 36,960 형태로 14%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 역시 압축성이라는 신문 표제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불완전 종결의 경우, 종결 어미 대신 어떤 성분들로 문장의 끝을 맺게 되는지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제는 내용과 형식이 완전한 초행완전(初行完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7] p.196) 실제로 94%의 표제가 불완전한 형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사 작성 요령을 설명하는 많은 문헌들에도 이미 불완전 종결 표제를 당연시하고 있다. [6]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한국 신문 기사에서는 표제 초행완전이라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보도-해설 표제와 사설-칼럼 표제의 비교

보도-해설과 사설-칼럼은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세부 장르로도 나뉠 수 있을 만큼의

<표 6> 보도-해설/사설-칼럼 표제 비교

	보도-해설		사설-칼럼	
	형태 수	비율	형태 수	비율
채인	102,935	60%	12,290	45.4%
용인	8,217	4.8%	2,292	8.4%
수식언	3,107	1.8%	723	2.6%
조사	9,737	5.6%	3,130	11.6%
어미	10,181	5.9%	3,241	12%
어근	1,408	0.8%	239	0.8%
기호	22,540	13.1%	3,315	12.2%
기타	13,445	8%	1,797	7%
총 형태 수	158,125	100%	25,230	100%

차이가 있으므로, 어떻게 다른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3)

<표 6>과 같이 보도-해설과 사설-칼럼의 표제 비교 결과는 신문 기사 표제 전체와 일반 말뭉치의 비교 결과와 유사하다. ‘표시성’과 ‘압축성’이라는 것은 정보의 빠른 전달과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사 표제의 특성인데, 사설과 칼럼이라는 것은 빠른 정보 전달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보도-해설 표제에서 보여진 ‘표시성’과 ‘압축성’의 요인들이 적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보도-해설 표제의 종결형과 사설-칼럼 표제의 종결형을 비교해보아도 알 수 있다.

<표 7>에서 보듯, 보도-해설 표제보다 사설-칼럼 표제의 완전 종결 비율이 더 높다. 이

3) 형태분석 말뭉치 신문 자료는 보도-해설 기사가 1,605,901어절(64%), 사설-칼럼 기사가 900,764어절(36%)를 차지한다. 그 중 표제의 비율은 보도-해설 표제 100,751어절(87%), 사설-칼럼 표제 14,741어절(13%)이다.

<표 7> 보도-해설/사설-칼럼 표제 종결형 비교

	보도-해설		사설-칼럼	
	형태 수	비율	형태 수	비율
완전 종결	846	3.8%	849	21.8%
불완전 종결	21,625	96.2%	3,045	78.2%
총	22,471	100%	3,894	100%

것은 사설-칼럼의 표제가 불완전 종결을 이용한 압축의 기능이 적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사설-칼럼의 내용적 특성상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종결형에 담아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4. 전문 분석

전문 분석에서는 전문과 일반 말뭉치의 형태별 토큰 개수를 비교하여 전문이라는 구성이 다른 것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신문 기사 말뭉치 2,506,665어절에서 추출한 전문의 총 어절 수는 266,672어절(11%)이다. 일반 말뭉치와의 비교를 위해 같은 어절 수의 비교 말뭉치를 선정하였다.

4.1 전문의 특성

이 절에서는 신문 기사의 전문과 비교 말뭉치의 형태별 토큰 개수를 비교하여 전문이 가진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일반-고유명사 형태 수의 비교 결과는 <표 8>과 같다.

전문인 경우, 일반 말뭉치보다 명사의 쓰임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3.1절에서 확인하였던 표제의 특성과 비슷한 결과이다.

<표 8> 전문/일반 말뭉치 비교

	전문		일반	
	형태 수	비율	형태 수	비율
일반-고유명사	196,234	34%	139,750	23%
대명사	2,329	0.4%	9,259	1.5%
용언	51,293	9%	84,193	14%
수식언	12,708	2%	28,736	5%
조사	93,558	16%	105,377	18%
어미	82,538	14%	118,420	20%
기호	68,428	12%	49,640	8%

전문의 명사 쓰임은 표제보다 많지는 않지만, 표제에서 나타나는 표시성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명사 역시 표제와 일반 말뭉치의 차이와 비슷한데, 글의 맨 앞에 위치한 전문의 특성으로 지시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용언, 수식언, 조사, 어미는 일반 말뭉치에 비해 적게 쓰였고, 기호는 일반 말뭉치에 비해 많이 쓰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정도의 차이를 제외하고, 표제와 일반 말뭉치와의 차이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신문 기사의 전문은 표제가 가지고 있는 ‘표시성’과 ‘압축성’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과 일반 말뭉치의 문장 길이를 비교함으로써 앞의 분석과 매우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다. 전문과 본문, 일반 말뭉치의 평균 문장 길이를 비교한 결과, 한 문장당 평균 어절 수는 전문이 17.0, 본문 15.7, 일반 말뭉치 13.0이었다. 이것은 전문이 표제와 비슷하게 ‘압축성’의 특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의외의 결과를 보여준다. 문장 내에서 나타난 ‘압축’이라는 특성이 문장 길이로 표현되지는 않은

것이다. 본문 역시 일반 말뭉치에 비해 문장의 길이가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은 독자로 하여금 그 문장에 시선을 멈추고 기사를 읽도록 관심을 유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의 핵심을 끄집어낸 간결하고 날카로운 진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의 결과는 전문이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수식언과 조사 등이 적게 사용되고, 명사가 많이 사용됨으로써 문장 내 압축의 기능이 높은 반면, 가독성(readability)의 기능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전문을 쓸 때 육하원칙의 표현과 독자의 흥미유발 및 사건에 대한 빠른 인식을 위하여 하나의 문장에 많은 내용을 담으려 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4.2 보도 기사의 표제와 전문

이전 분석에서도 보았듯이 표제와 전문은 비슷한 기능과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같은 기사 안에서의 표제와 전문은 그 내용에 있어서 얼마나 유사성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표제와 해당 전문을 하나의 세트로 설정해 내용어를 중심으로 동일 형태 비율을 알아볼 것이다. 자동화의 문제로 인해, 약 8,000개의 기사 중 100

<표 9> 표제-전문 세트 구성

신문사	기사 수	장르
동아	20	(의신, 사회)
조선	20	(경제, 사회)
한겨레	20	(경제, 사회)
중앙	10	(과학)
한국	10	(경제)

<표 10> 표제/전문 기사당 평균 형태 수 비교

	표제	전문
일반명사	10.19	19
고유명사	1.16	2.82
동사	0.65	2.93
형용사	0.14	0.49
총	12.14	25.24

개의 기사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선별된 기사는 <표 9>와 같다.

먼저, 내용어를 대상으로 한 표제와 전문의 기사당 평균 형태 수는 <표 10>과 같다.

표제와 전문은 서로 비슷한 기능을 갖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표제의 어휘가 전문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을 확인하기 위해 표제와 전문에서 동시에 사용된 동일 형태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표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표제 안의 36.5%의 내용어가 전문에 사용되었으며, 전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문 안의

17.7%의 내용어가 표제의 것을 그대로 따랐다. 즉, 표제와 전문의 동일 형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일 어휘 이외에 유사어나 약어 등의 사용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한다면 더 높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어나 약어까지 동일 형태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실제로 많은 형태의 유사어나 약어가 사용되었다.

4.3 사설-칼럼 표제와 전문

3.2절에서 보도-해설의 표제보다 사설-칼럼의 표제가 일반 말뭉치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1절에서는 전문을 일반 말뭉치와 비교하여 그 특성이 표제와 비슷함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표제의 특성을 가진 전문과 일반 말뭉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설-칼럼 표제가 서로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사설-칼럼의 표제와 전문이 유사한 특성을 갖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

<표 11> 장르별 비교

	보도		사설		전문		일반 말뭉치	
	형태 수	비율	형태 수	비율	형태 수	비율	형태 수	비율
체언	102,935	60.0%	12,290	45.4%	89,143	42.3%	63,002	27.9%
용언	8,217	4.8%	2,292	8.4%	16,685	8.0%	32,355	14.3%
수식언	3,107	1.8%	723	2.6%	3,806	1.8%	11,054	4.9%
조사	9,737	5.6%	3,130	11.6%	33,696	16.0%	39,178	17.3%
어미	10,181	5.9%	3,241	12.0%	28,848	13.7%	45,175	20.0%
어근	1,408	13.1%	239	12.2%	893	7.7%	2,167	7.7%
기호	22,540	0.8%	3,315	0.8%	16,222	0.5%	17,349	0.9%
기타	13,445	8.0%	1,797	7.0%	21,701	10.0%	15,054	7.0%
총	171,570	100%	27,027	100%	210,994	100%	225,334	100%

해 보도-해설 표제와 일반 말뭉치를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보도-해설 표제와 사설-칼럼 표제는 3.2절의 결과를 사용하였으며, 전문과 비교용 일반 말뭉치는 보도-해설 표제의 어절 수에 맞추어 구성하였다.

<표 11>은 보도-해설 표제와 사설-칼럼 표제, 전문, 일반 말뭉치를 함께 비교한 결과이다.

위의 결과에서 보듯이, 수식언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사설-칼럼의 표제와 전문이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설-칼럼의 경우, 수식언의 쓰임이 많은 것은 사설-칼럼의 표제가 압축의 특성이 덜하고, 화려한 수식어의 사용으로 독사의 관심을 유발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해볼 수 있다.

5. 본문 분석

표제와 전문을 제외한 본문은 기사의 알맹이로서 신문의 일반적인 장르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장을 통하여 신문 기사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본문과 일반 말뭉치를 비교하여 본문의 특성을 파악하고, 표제, 전문, 본문에 대한 각각의 분석도 해본다.

5.1 문장 구조 분석

이 절에서는 93,798어절 규모의 신문 기사 구문분석 말뭉치를 이용하여 단문과 복문의 쓰임을 분석한다. 일반 말뭉치와의 비교를 위해 같은 규모의 비교 말뭉치를 선정하였다.

본문과 일반 말뭉치의 단문과 복문 개수는 <표 12>와 같다. 신문 기사의 본문은 구조가

<표 12> 본문/일반 말뭉치 문장 비교

	본문		일반 말뭉치	
	형태 수	비율	형태 수	비율
단문	3,477	56%	5,902	67%
복문	2,783	44%	2,944	33%
총 문장 수	6,260	100%	8,846	100%

단순한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의 결과에서 보듯이 신문 기사의 본문이 일반 말뭉치에 비해 구조가 더욱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문과 일반 말뭉치의 복문 구성은 <표 13>과 같다.

접속과 내포의 관형사절을 제외하고 비슷한 비율로 복문이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신문 기사 본문은 일반 말뭉치보다 접속의 구성이 적으며, 반대로 내포의 관형사절 구성이 많다.

표제, 전문, 본문의 구성을 비교해보면 <표 14>와 같다.

표제의 경우 복문이 3%밖에 쓰이지 않았으며, 전문이 본문보다 복문의 쓰임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전문에서 하나의 문장에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해 구성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표 13> 본문/일반 말뭉치 복문 구성 비교

	본문		일반 말뭉치		
	형태 수	비율	형태 수	비율	
접속	1,056	29%	1,172	32%	
명사절	159	4%	169	4%	
내포	관형사절	1,889	52%	1,801	49%
	부사절	83	2%	76	2%
인용절	462	13%	480	13%	
총	3,649	100%	3,698	100%	

<표 14> 표제/전문/본문 문장 비교

	표제		전문		본문	
	형태 수	비율	형태 수	비율	형태 수	비율
단문	1,438	97%	221	54%	3,477	56%
복문	49	3%	192	46%	2,783	44%
총 문장 수	1,487	100%	413	100%	6,260	100%

<표 15> 신문 기사/일반 말뭉치 문장 비교

	신문 기사		일반 말뭉치	
	형태 수	비율	형태 수	비율
단문	5,136	63%	5,902	67%
복문	3,024	37%	2,944	33%
총 문장 수	8,160	100%	8,846	100%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⁴⁾ 표제, 전문, 본문의 복문 구성 비교 결과 약간의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대략의 분포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기사 전체와 일반 말뭉치의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 <표 15>와 같다.

주로 단문으로 구성되어있는 표제가 포함됨에 따라 본문과 일반 말뭉치의 비교 분석에 비해 차이가 적다. 마찬가지로 복문의 구성 비율도 많은 차이가 없음을 <표 16>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복문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신문 기사 전체와 일반 말뭉치의 많은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 문어의 복문에 있어서 접속보다는 내포의 구성이 많이 쓰이며, 내포의 구성 중 관형사절이 다른 절에 비해 월등히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분석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었다.

4) 전문의 문장 길이가 본문에 비해 길다는 분석은 4.1절에서 다루었다.

<표 16> 신문 기사/일반 말뭉치 복문 구성 비교

	신문 기사		일반 말뭉치	
	형태 수	비율	형태 수	비율
접속	1,131	29%	1,172	32%
명사절	161	4%	169	4%
내포 관형사절	2,062	52%	1,801	49%
내포 부사절	93	2%	76	2%
인용절	489	13%	480	13%
총	3,936	100%	3,698	100%

5.2 어휘 분석

이 절에서는 1,713,995어절의 신문 기사 형태의미분석 신문 기사 말뭉치를 이용하여 일반명사 중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 등의 사용 비율을 분석 해볼 것이다. <표 17>에서 제시된 고유한자, 외래한자 등의 표현은 고유어와 한자어의 합성어, 외래어와 한자어의 합성어를 의미한다. 일반 말뭉치와의 비교를 위해 같은 규모의 비교 말뭉치를 선정하였다.

본문과 일반 말뭉치의 일반명사 구성은 위와 같다. 일반 말뭉치에 비해 신문 기사의 본문에서 한자어가 많이 쓰이며, 상대적으로 고유어의 쓰임은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자어와 고유어가 대부분의 일반명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어휘들

<표 17> 본문/일반 말뭉치 일반명사 구성 비교

	본문		일반 말뭉치	
	형태 수	비율	형태 수	비율
한자어	685,767	82.8%	578,647	67.7%
고유어	85,533	10.3%	215,904	25.3%
미등록어	27,562	3.3%	20,430	2.4%
외래어	20,387	2.5%	26,430	3.1%
고유한자	7,264	0.9%	11,800	1.4%
외래한자	1,764	0.2%	1,182	0.1%
외래고유	53	0%	46	0%
고유한자외래	1	0%	2	0%
총	828,330	100%	854,439	100%

의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외래어의 경우 신문 기사의 본문이 일반 말뭉치보다 적게 나타나는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 신문 기사는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의 보도와 새로운 문화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해 많은 외래어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국립국어원에서는 언론 외래어 심

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신문의 외래어 사용 실태를 개선하고 있다. 그럼에도 신문 기사에서의 외래어 비율이 일반 말뭉치에 비하여 적게 나타나는 것은 신문에 사용된 외래어가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미등록어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표 18>은 표제, 전문, 본문의 일반명사 구성이다.

표제, 전문, 본문의 일반명사 구성 분석 결과 뚜렷한 구성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문 기사 전체와 일반 말뭉치를 비교한 결과는 본문과 일반 말뭉치를 비교한 결과와 유사할 수밖에 없다.

신문 기사와 일반 말뭉치의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 사용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한자어와 고유어 이외의 특이할만한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분석을 통하여, 일반적인 문어에서 사용되는 일반명사의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 미등록어 등의 비율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겠다.

이러한 분석은 강범모(1999)[1]에서도 이루

<표 18> 표제/전문/본문 일반명사 구성 비교

	표제		전문		본문	
	형태 수	비율	형태 수	비율	형태 수	비율
한자어	59,164	83.8%	109,416	83.6%	685,767	82.8%
고유어	5,265	7.5%	11,398	8.7%	85,533	10.3%
미등록어	3,414	4.8%	5,067	3.9%	27,562	3.3%
외래어	1,997	2.8%	3,670	2.8%	20,387	2.5%
고유한자	545	0.8%	938	0.7%	7,264	0.9%
외래한자	189	0.3%	327	0.3%	1,764	0.2%
외래고유	7	0%	18	0%	53	0%
고유한자외래	1	0%	0	0%	1	0%
총	70,582	100	130,834	100	828,331	100

<표 19> 문어 말뭉치 일반 명사 비율

문어 말뭉치 일반 명사 비율	
한자어	75.3%
고유어	17.6%
미등록어	3.0%
외래어	2.8%
고유한자	1.1%
외래한자	0.2%

어진 바 있다. 한국어의 텍스트 장르와 언어 특성을 연구하면서 82가지의 언어 특성들 중 한자어와 외래어를 포함시켜 어휘의 종류를 살펴보았다. 신문 기사의 경우 이음절 이상의 한자어의 쓰임이 약 47%, 외래어의 쓰임이 약 2%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강범모(1999)[1]에서는 일반명사만이 아닌 모든 품사를 고려하였으며, 약 37만 어절 규모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9>는 신문 기사를 포함한 일반 문어 말뭉치의 일반명사 비율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미등록어의 경우, 여러 가지의 존재 가능성이 있다. 신조어나, 약어, 외래어, 합성어 등과 비표준어나 단순한 오타의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등록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

6. 결 론

지금까지 신문 기사를 표제, 전문, 본문의 구성으로 나누어 각각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해보았다. 신문 기사의 코퍼스 언어학적 분석

은 대용량의 신문 기사 말뭉치를 이용한 계량적 방법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하여 기존의 직관을 이용한 연구 방법들과 차별된 실증적 연구로서 신문 이론을 검증하거나 새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3.1절에서는 표제가 '표시성'과 '압축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기존의 이론을 통해 이러한 특성들이 어떤 형태로 표출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3.2절에서는 보도-해설 표제와 사설-칼럼 표제의 차이를 비교하여 둘의 차이가 표제와 일반 말뭉치의 차이와 비슷하며, 이것은 사설-칼럼의 표제가 사건 보도라는 기능을 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성'과 '압축성'이라는 특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이라고 보았다.

4장에서는 전문과 일반 말뭉치의 비교 결과가 표제와 일반 말뭉치의 비교 결과와 유사하다는 분석을 통해 전문도 표제가 가지고 있는 '표시성'과 '압축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도-해설 표제와 해당 전문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사설-칼럼 표제와 전문이 유사한 형태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5.1절에서는 신문 기사가 일반 말뭉치에 비하여 문장 구조가 복잡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복문의 세부 구성을 분석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복문에 있어서 접속보다는 내포의 구성이 많이 쓰이며, 내포의 구성 중에서도 관형사절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5.2절에서는 신문과 일반 말뭉치의 일반명사를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문어에서 사용되는 일반명사의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 미등록어 등의 비율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남은 과제는 다음과 같다.

형태분석 말뭉치를 이용한 분석은 주로 형태별 토큰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형태별 개수를 비교하기보다는 개별적인 언어 특성에 의한 의미적 구별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4장 전문 분석의 전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전문이 아님에도 전문으로 추출된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신문 기사의 90% 이상이 역피라미드형이나 혼합형이라고는 하나 실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설과 해설 기사의 경우 전문 추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나머지 기사들 중 일부 전문의 기능을 하지 않는 문단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2절의 보도 기사의 표제와 전문에서는 약 8,000개의 표제와 전문 세트들 중 신문사별 비율을 고려한 100개의 샘플을 통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표제와 해당 전문의 세트를 만들어내는 작업과 내용어 중 동일 형태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세련된 도구를 이용한 자동화를 통하여 더욱 일반적인 분석 결과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 또한 동일 형태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동일 형태 이외에 유사어나 약어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우까지 검토할 수 없었다. 유의어 사전 등을 참조한 분석을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다.

아울러 5.2절의 어휘 분석에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이외의 사전 미등록어를 검토함으로써 어떠한 종류의 어휘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지를 살피는 것이 하나의 과제로 남을 수 있다.

참고문헌

- [1] 강범모 (1999), **한국어의 텍스트 장르와 언어특성**,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2] 강범모, 김홍규, 허명희 (2000), **한국어의 텍스트 장르, 문체, 유형: 컴퓨터와 통계적 기법의 이용**, 서울: 태학사.
- [3] 김홍규 외 (1998~2004), 21세기 세종계획 국어기초자료 구축분과 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
- [4] 박갑수 (1998), **신문·광고의 문체와 표현**, 서울: 집문당.
- [5] 박재영, 신명선 (2004), **신문기사의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서울: 미디어 연구소.
- [6] 박종화 (2003), **미디어 문장과 취재 방법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 [7] 한국편집기자회 (1978), **신문편집**, 서울: 집문당.
- [8] 하타노칸지(波多野完治) (1966), **현대문장심리학**, 대일본도서.